

“中國 해킹 기승… 美 통신사 등 기반시설 빨간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미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발(發) 해킹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와 공감대가 깊고 일찍부터 중국의 세계패권 추구와 위협성에 주목해 온 미 차기 외교·안보 수장의 대중 강경론이 재확인된 셈이다. 왈츠는 그린베레(특수부대) 출신의 참전용사이자 현 정부의 제이크 설리번과 여러모로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이다.

15일(현지시간) 미 CBS 화상 인터뷰에서 왈츠는 중국이 최소 8개 미 통신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 발표에 대해 “절대로 용납 못할 일이며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공격하며 계속 데이터를 훔치고 엿듣는 민간인 및 국가에게 더 비싼 비용·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부연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배후가 중국인 것으로 파악된 해킹 그룹 ‘볼트 타이푼(Volt typhoon)’의 침투를 “수도시스템·전력망, 심지어 항공 등 우리 인프라에 사이버폭탄이 설치된 것”에 비유해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차기 안보보좌관 “對中봉쇄·차단 강력 조치” “드론도 防空 대상… 우크라이나전쟁 종식 노력”

특히 왈츠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생가 도 마찬가지로”라며 “그저 상대의 공격과 우리의 방어가 주거나 받거나 확대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킬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트럼프가 외쳐 온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의 다른 표현이다. 왈츠는 내달 새 정부 출범시 “취임 첫날부터 모든 일에 너무 앞서가진 않겠지만 사이버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며 “이런 일(해킹)을 중단시키기 위한 비용 부과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서 ‘비용 부과’란 다양한 방식의 제재를 의미한다.

왈츠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요 외국 정상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중시하며 모든 전화에 응한다. 사실상 주적으로 간주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만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 관리를 중시하며 이런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축하와 친절한 말(덕담) 이상의 것은 없

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련한 호의적 인사도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합리적이다. 전 세계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낙인이 트럼프를 따라다녔으나 재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왈츠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인류사 최초 대량 살상을 초래한) 1차 세계대전 유형의 전쟁” “인간 고기분쇄기”에 비하며 트럼프의 의중을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통해 메시지를 발신 중인가 묻자 구체적 답을 피했으나 “대화 지속” “대통령 당선인의 확고한 전쟁 종식 의지”를 역설했다.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 때 바이든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백지수표’에 비한 것을 들어 “그런 게 (중전) 전략일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시리아 내 미군 유지 여부엔 즉답 대신 원칙이 거듭 확인됐다. “ISIS(이슬람국가) 역제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 “그들이 이라크·요르단·튀르키예·유럽을 위협하며 대미



미국 차기 정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가운데) 연방 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미 CBS 인터뷰에서 중국발 해킹에 더욱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책을 재확인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전쟁 종식 노력, 중동 전략 등 트럼프2기의 외교·안보 기조가 두루 언급됐다. 연합뉴스

테러를 부추길 이슬람신정국을 만들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 동부 뉴저지주·뉴욕시 일대에 최근 잇따른 정체불명 비행물 출몰 문제엔 철저한 조사와 배후 규명이 강조됐다. 왈츠는 “바이든정부가 그렇게 (철저 조사)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으나 추구의 여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그는 이

을 키운 상태다. 연방 상원의원으로 막 활동을 개시한 현지 지역구의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은 관계 당국의 소극적 설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엔 뉴욕시로부터 북쪽 100여km 떨어진 슈타트 국제공항 인근의 드론 출현으로 공항 운영이 1시간가량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으며 트럼프가 그날 소셜미디어에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악관·국토안보부(DHS)·연방항공청(FAA)·연방수사국(FBI)이 합동 성명을 통해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설사 드론이었다 해도 현재로서는 제한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15일 ABC방송에 출연해 “드론 목적 사례에 대응하고자 연방정부가 뉴저지주 경찰에 추가 자원인력·기술을 배치했다”고 말했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대서양-태평양을 낀 안보 천혜의 땅 미국마저 위협 대상이 된 국제정세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더 신뢰를 준 게 트럼프 대선 승리의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업하기 힘들다” 英 자본 507조 원 대거 미국으로 대탈출

영국 런던증시에서 상장사 이탈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추정 보도했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올해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88개인 반면 신규 상장사는 18곳에 그쳤다. 기업공개(IPO)가 줄고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는 늘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상장사 숫자 순감 ‘최다’, 신규 상장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의 규제완화 등 자본 유인 노력도 ‘대탈출’을 막지 못했다.

기업 친화적인 곳에 돈이 몰리고 투자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자본 이탈’이란 한마디로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됐다는 뜻이다. 지난 수십 년 복지 위주의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정당들이 지배하면서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엔 기업하기 어

려운 풍토가 자리잡았다. 세금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와 DEI(다양성·평등성·포용성) 등 규제는 갈수록 다채롭고 촘촘해졌다. 주식시장에 기댄 미국과 달리, 담보를 잡혀 심사 끝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자본 조달 방식 또한 옛날 그대로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부흥과 번영을 지탱한 두 축이 사라진 게 결정적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가 끊겨 타격이 큰 마당에 방위비 부담까지 크게 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사실상 짊어준 것이나 다름없던 미국의 기존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가총액 230억 파운드(약 41조7000억 원)의 장비 렌탈기업 애슈테드(AS)가 이탈 런던증시에서 뉴욕증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고 밝혔다. 2020년 이래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ITSE) 100 지수 기업 중 해외 증시로 가기 위해 런던 증시를 떠나는 여섯 번째 기업이다. 이들 6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3일 기준 2800억 파운드(507조 원), FITSE 100 기업 전체 시총의 14%에 달한다.

시총 390억 파운드(70조7000억 원)의 도박업체 플러터와 440억 파운드(79조7000억 원)의 건축자재업체 CRH가 지난 1년 반 사이 뉴욕증시로 옮겼다. 다양한 투자자나 유동성 향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광업 등 기존 경제부문 중심인 FITSE 100 지수가 올해 약 8% 오른 데 비해 빅테크 기업이 급성장 중인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7%나 상승했다. 영미이익의 98%가 미국에서 나온 애슈테드처럼 증시 이전의 주요 배

경이 북미 사업 성장세인 경우도 있다.

작년 미 동종업계 상장사 대비 평가차매출 비중·복미 주주 비율 등을 바탕으로 한 FT 분석은 대형 상장사 18개가 런던 증시를 빠져나갈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중 광산업체 리오틴토·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엔 각각 호주·미국 증시로 주력 증시를 옮기려는 투자자들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 13일자 보고서에선 “점점 더 많은 영국 기업이 미국으로 상장 이전을 고려 중”이라며 “영국과 미국의 평가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FITSE 100 기업 중 한 곳의 최고경영자는 애슈테드 이전 발표 후 “아주 슬픈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런던 상장 폐지나 이전을 가속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영신 기자 imms@skyedaily.com

을 상장폐지 88·신규 18곳… 트럼프 2기 땀 더 가속화 높은 세금·사회민주주의 정당 득세에 경영인들 두손



런던증권거래소그룹에 따르면 올해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88개인 반면 신규 상장사는 18곳에 그쳤다. 기업공개가 줄고 사모펀드의 상장사 인수는 늘면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상장사 숫자 순감 ‘최다’, 신규 상장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수출기업의 더 큰 성장에 Ksure가 함께합니다

격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업들의 무역활동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미래 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